

- 본문 : 이사야 49장 5~6, 14~21절
- 제목 : “교회, 이방의 빛으로”

설교자 : 조경래 담임목사

· 본문 읽기

-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
- 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
-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
- 15 여인이 어찌 그 젓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
-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
- 17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
-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
- 19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
- 20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
- 21 그 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

· 마음의 문을 열며

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. 그 가운데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일 중 한가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가정, 문화, 삶을 잃어버리게 될 때입니다. 이것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가 외롭고, 고독하여, 하염없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게 합니다. 마치 고아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. 고통과 아픔과 상실로 인한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.

1.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생이 바뀌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. 나의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.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?

· 말씀의 씨를 뿌리며

2.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?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십니까? (사49:5~6)
3.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?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? (사49:14~16)
4. 교회가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계십니까? "나는 송원교회입니다"를 고백하는 당신에게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?? (사6:8)

· 삶의 열매를 거두며

5. 말씀의 빛은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는 곳에 필요합니다. 우리를 빛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, 송원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어보고, 결단해 봅시다.